

Hansun Brief

발행일: 2018년 4월 18일(통권56호) / 발행인: 박재완 / 발행처: 한반도선진화재단 / 서울 중구 퇴계로 197, 407호 / 전화: 02-2275-8391 / email: hansun@hansun.org / www.hansun.org 

홍익인간과 시장경제

강 정 모

경희대학교 명예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정책위원

목 차

1. 홍익인간상
2. 홍익인간의 상생모형
3.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와 시장경제

2,000원으로 내 마음같은 '정책후원' 하기

 문자 한 통 #7079-4545

경제사회의 기본은 성장과 분배이다. 그런데 성장을 만드는 제1차 분배는 불균형 관계에 있고 수요를 위한 제2차 분배는 균형 돼야 하기 때문에 둘은 역설적 관계에 있다. 성장의 근원인 혁신은 실패를 통해 얻어지고 소수가 이룩하기 때문에 불균형 분배로 귀착된다. 따라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불균형적 성장으로 문제를 풀고 그 간격을 조세로 푸는 것이 일류 국가들의 상생모형이다. 성장의 주역은 혁신이기 때문에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조하는 것은 시장의 영역이고 분배는 제도의 영역이다.

시장경제의 발전원리인 성과에 따른 차별화장치를 강화하는 정책을 펼쳐야 혁신이 촉진되어 풍요한 부를 창출할 수 있다. 시장은 잘되는 경제주체를 선택하고 지원하는 경제적 차별화 장치로 경제적 기여에 따라 상응하여 보상하기 때문이다. 즉 시장은 스스로 노력하는 자만을 도와 모두를 돕는 동기부여의 작동장치이다. 즉 생산을 통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거 공산주의 체험에서 우리가 깨달은 것처럼 1/n은 안 된다는 것이다.

반면에 지속가능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2차 분배는 가처분소득으로 시장의 수요를 뒷받침하는 근간이다. 제2차 분배는 균형을 잡아야 한다. 제1차 분배는 성장을 제2차 분배는 수요를 뒷받침하므로 각각을 분리하여 최적화해야 한다. 불균형 성장과 균형 분배, 이 두 가지를 조세로 균형을 맞춰 주는 것 즉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갭을 메워주는 것이 일류국가들의 조세정책이다. OECD국가들 중에서 제1차 분배와 제2차 분배의 격차를 메우는 역할이 가장 낮은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따라서 성장은 촉진하되 불균형을 축소하는 불균형 성장과 균형 있는 분배가 바로 선순환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순환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순환이다. 성장을 위한 일자리 혁명에서 오는 불균형 시장 소득은 제1차 분배이고 분배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균형적인 가처분 소득은 제2차 분배로 해결해야 한다.

반면에 인간의 복지에 중점을 두는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분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본주의 결과는 양극화이고 사회주의 결과는 저성장이다. 따라서 성장과 분배의 역설은 양극화와 저성장을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 정책은 분배 문제로 폐기하고 분배 정책은 성장 문제로 폐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양극화된 세력이 서로 협력을 못하여 저성장 양극화로 가고 있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은 성장과 분배를 분리하고 다시 순환시키는 것이다. 성장은 촉진하고 불균형은 축소시키는 것이다. 성장은 시장의 영역이고 분배는 제도의 영역이다. 불행한 것은 제도가 시장으로 그리고 시장이 분배 영역으로 들어갈 때 이 세상에 비극이 발생했다. 따라서 이 선순환 과정이 경제가치와 사회가치를 순환시키는 것 성장을 위한 불균형 시장 소득을 제1차 분배 그리고 갈등 해소를 위한 균형 잡힌 가처분소득으로 제2차 분배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경제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1. 홍익인간상

홍익인간은 '널리 인간 세상에 道를 넘치게 하여 널리 골고루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홍익인간형 지도자는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지도자로서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극대화시키는 지도자이다. 사람은 일하지 않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복지를 늘리면 늘릴수록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기본적 권리와 함께 스스로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강화하는 천리에 따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복지를 극대화시키고 공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지도자 형은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대의를 버릴 수 있는 반골과 같은 사람이 절대로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지도자들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한국의 지배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

지도자의 필수적인 소양은 전략가가 되는 것이다.

전략이란 목표나 목적에 입각한 우위창출체제이고 전략가는 우위창출체제를 고안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성공적인 전략의 첫 단계는 목표나 목적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다. 지도자는 조직을 생존할 수 있도록 움직이는 전략가들이다. 전략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도 지속적으로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국민과 국가의 성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훌륭한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 모두가 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모든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소선(小善)은 대악(大惡)이 될 수 있고 대선(大善)은 비정(非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홍익인간은 대선을 행해야 함을 의미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려면 탁월한 정신으로 무장한 지도자들이 대선을 행해야 하며, '홍익 이화(弘益 理化) 및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이

념'을 공유하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정치이념·윤리이념이고 교육의 구현정신인 홍익인간이념은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단결할 수 있는 정신적인 구심점이며,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사고의 틀이다. 홍익인간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정신과 부합될 뿐만 아니라 친근한 민족정신의 정수이며 유교의 인, 기독교의 박애정신, 불교의 자비심과 상통하여 국민대통합을 위한 생각의 틀로 대한민국의 상생발전 정신과 인류의 공동체사상으로 손색이 없다.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기업가정신이 필수적이다. 한국이 일자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기 탓으로 돌려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생활신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이 남북통일을 이룩하고, 무한경쟁의 자유무역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다칠 국난을 극복하기 위한 지칠 줄 모르는 생활신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홍익인간 정신을 현대에 되살리면 결국 지식, 정보, 일자리, 재물을 증진시켜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게 된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생산적 관계로 정의되는 경제요소를 홍익인간 정신에 어떻게 반영하여 발현시킬 수 있을까? 홍익인간이란 정신자본을 발현시키고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근면성, 자조성, 협동성, 창의성, 수월성, 공정성, 역동성, 정직성 등과 같은 요소들을 교육을 통하여 전파하고, 사회제도에 반영시켜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실행에 옮겨야 한다.

2. 홍익인간의 상생모형

홍익인간은 공공적 이익에 헌신하는 전략가·전문가이며 실천하는 지성인으로 지식·인정·물자·정보 등의 원활한 소통과 통합을 추구하여 공동체에 순 가치를 줄 수 있는 인간과 법인을 의미한다. 그러므로써 지식(知識)·정신(精神)·인정(人情)·의사(意思)·정

보(情報)·일자리·물자 등이 물처럼 넘쳐흐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의 양극화와 갑(甲)과 을(乙)의 대립이 없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조직구성원이다. 홍익인간상을 경제학적 관점에서 홍익부등식으로 도출해 보자.

인간의 삶과 일의 방식은 고도화될수록 점점 수단매체가 우회적으로 되었다. 인간이 개발하고 창조한 지식과 지혜 등은 일의 실현가능성과 생산성을 높여주는 정신적 수단매체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가정, 조직, 국가 같은 공동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고 협동하며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수단매체가 필요하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단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회적 수단매체는 협동성, 정치적, 신뢰성 및 자기희생 능력일 것이다. 수단매체의 고도화를 위한 필요조건은 근면, 자조, 협동, 열정, 혁신, 창조, 인내력, 자연탐구이며 이들이 융합하여 인류문명의 발전은 물론 한국의 경제발전도 이룰 수 있다.

계량화가 가능한 소망인 목적함수는 선택과 포기의 결과이다. 선택은 반드시 포기하게 되므로 기회비용이 생기며, 이는 희생을 감수하는 가치관을 전제로 한다. 이 목적함수는 개인차원, 조직차원, 국가차원에도 존재한다. 목적함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각의 틀이 필요하다. 유한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비용최소화는 단기적 또는 장기적 관점이냐에 따라 달라지고, 개인적 관점이냐, 조직의 관점이냐 혹은 국가적 관점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인간이 처음에 생각했던 생각의 틀은 인간의 한계성 때문에 완벽하지 않고 허점이 많아 이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생각의 틀도 바뀌어야 한다. 생각의 틀 전환 때 고려할 사항은 기회비용의 최소화, 모든 대안에 대한 기회균등, 먼저 한 선택이 나중에 선택하는 대안을 제약한다는 것, 단기 최적의 장기 최적의 훼손 등이다.

최적의 해는 전체최적(大善)은 부분최적(小善)과 같지 않으므로 서로 갈등관계에 있다. 이는 개인이나 기업 차원의 최적이 국가 차원의 최적과 같지 않고, 국

가 차원의 전체최적과 부분최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우리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공평성 원칙에 직면하게 되어 정의의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정의의 개념은 자비, 관용, 동정, 연민과 같은 개념과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이는 서양에서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다른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형상으로 동서양이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철학이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생존경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인간의 생존경쟁에서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모형은 나 살고 너 죽고, 나 살고 너 살고, 나 죽고 너 죽고, 나 죽고 너 사는 4가지 유형이 있다. 공생한다는 것은 '나 살고 너 살기'모형이고 이의 실천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시장경제체제에서 인간에게 크게 이익이 넘쳐흐르게 하는 '나 살고 너 살기'의 기본은 거래이며 시장에서 이것이 조정된다. 인간의 삶은 주고받음을 기본으로 한다. 시장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일반적인 필요조건은 소비자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V)가 지불해야 할 가격(P)보다 적지 않다고 느끼면 구입하게 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재화나 서비스 가치(V) ≥ 재화나 서비스 가격(P)
혹은 순가치 (V - P) ≥ 0 (1)**

식 (1)을 만족시키면 생산자(기업)는 소비자에게 (V-P)만큼의 순가치를 준다.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기여한 순가치가 0(零)인 생산자는 겨우 생존할 수는 있으나 큰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다. 재화나 서비스의 경쟁력은 (V-P)로 나타낼 수 있다. 생산자가 경쟁력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시장에 공급하려면 제품의 가치를 높이고 가능한 한 가격을 낮추어야 한다. 생산자의 입장에서서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P)이 생산비용보다 작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단위비용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이를 식으로 표시하면

**재화나 서비스 가격(P) ≥ 재화나 서비스 단위당
생산비(C) 혹은 (P - C) ≥ 0 (2)**

식 (2)가 성립하면 생산자(공급자)는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생존할 수 있다. 그러면 생산자는 식 (1)로 나타낸 (V-P)만큼 소비자에게 주고 (P-C)만큼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 (1)과 (2)에서 식 (3)을 도출할 수 있다.

**재화나 서비스 가치(V) ≥ 재화나 서비스 가격(P)
≥ 재화나 서비스 단위생산비(C) (3)**

이는 소비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치(V)는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P)보다 작지 않아야 하고,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P)이 재화나 서비스의 단위생산비(C)보다 작지 않아야 한다. 소비자는 (V-P)를 얻고, 생산자는 (P-C)를 얻는 공생의 삶을 실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이러한 공생의 삶을 추구하기 위한 조건을 "홍익부등식"이라 부를 수 있다.

이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간과 조직 및 국가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사람의 가치가 자기의 가격(일당 혹은 봉급)보다 작지 않으면 누구든 그 사람을 필요로 하여 고용할 것이고, 사람의 가격(봉급)이 자신의 생계비보다 작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그가 받는 평생소득이 그를 키우는 비용보다 작지 않으면 그는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되어 보람찬 인생이 된다.

홍익부등식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생산자(기업)는 망하고 개인은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홍익부등식의 오른 쪽 항의 부등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용최소화의 노력인 근검절약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 미덕이 된다. 홍익부등식은 남녀 모두에게 자기희생을 필요로 하는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에도 적용될 수 있다. 결혼생활로 얻는 가치가 결혼생활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기희생 비용의 크기보다 작지 않아야 결혼생활이 지속되어 해로하게 된다.

기업이나 개인이나 홍익부등식을 충족시키면 '나 살고 너 살기'식이 되어 기업의 생명력은 길어지고 개인은 삶의 보람을 느낄 것이다. 삶의 보람에 충만한 개인은 더 창조적 인간이 되고, 이를 실천하는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게 되므로 존경받는 창조적 기업이 된다. 이는 모든 인간, 제품, 예술 작품, 정부 기관 및 비정부기관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홍익부등식은 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개인과 조직이 홍익인간부등식대로 실천한다면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얻는 총혜택이 최대화되는 상태가 되어 사회적으로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넘어 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공유가치를 창출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가진 전문성을 통해 사회에 필요한 가치를 창출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증대로 연결되는 경영활동으로 기업의 이익과 사회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조화시켜 기업과 공동체가 공생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사회 공헌활동과 윤리경영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빈부격차를 줄이고 환경보호 등에 기여하지만 기업의 이익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사회적 책임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자신의 전문분야인 IT기술을 스마트한 교육, 의료, 고용, 건강, 환경 분야에 접목시켜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람과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새로운 발전 틀을 개발하고 있는 것이 공유가치창출 경영의 좋은 예이다.

3.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와 시장경제

제도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제도가 바뀌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도 변한다. 자유 없이 정치 발전과 경제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 인권의 존엄성은 자유의 가치가 신장되면서 인정되기 시작

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자유는 경제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유는 창의성을 유발하여 신제품을 만들어 내고 이는 다시 상품의 수요를 유발하면서 경제발전의 선순환이 가속화 되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자유주의가 선진국의 제1의 조건이 되나 자유의 신장이 공동체를 훼손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절제된 자유여야 한다. 결국 개인과 공동체가 더불어 발전하는 것이 상생발전의 요체이다.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면 책임을 수반하지 않는 자유방임주의가 되거나 과잉이기주의로 변하여 오늘날과 같은 대립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유를 기반으로 개인의 존엄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의식의 선진화 없이 제도의 선진화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동체 의식에 입각한 개인의 자유추구가 상생모형의 기본이 된다.

한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사적인 이익의 추구하고 공공이익에의 헌신사이에 적절한 균형유지가 필요하다. 사회 전체적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려면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문화의 선진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질 높은 국가지도력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의 선진화와 제도의 선진화가 동시에 추구되어야 가능하다. 정치인은 솔선수범하여 공익우선의 자세를 견지하고, 품격과 절제된 언어, 겸손한 자세, 세계화와 정보화 시대의 흐름을 간파하는 통찰력과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이 있어야 한다. 사회적으로는 공중도덕과 법치로 질서가 바로 서야 한다.

발전단계가 고도화되어 제반 사회현상이 복잡해지고 중층화 될수록 제대로 된 분업질서가 필요하고 각자가 하는 일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고 생산적이고 이로운 일이 되도록 자기 맡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정보화와 세계화에 의한 무한경쟁 시대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조직 사이, 조직과 조직 사이 등 사이의 질이 중요한 경쟁력의 원천이 된다. 이 사이들을 결합시켜 생산적인 관계로 만드는 요소는 정직성, 근면성, 신뢰성, 진실성, 협동성, 투명성 등일 것이다. 사람과 사람사이, 본사와 하

도급업체 사이가 상호신뢰 속에 정보를 공유하고, 협동적 관계를 유지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이들이 만드는 제품의 품질과 경쟁력은 크게 달라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하나가 잘못되면 자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치사슬에 연계된 모든 사회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발전모형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에 적합한 정신자본이 홍익인간 이념이다.

홍익인간 이념과 홍익정신을 경제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사람과 사람, 사람과 법인, 법인과 법인 사이에 지식과 정보 및 재물을 불려서 넘쳐나도록 하여 널리 이로운 생산적 관계"로 정의할 수 있다. 즉 국조의 개천개국 이념인 홍익인간 재세이화(弘益人間 在世理化)에서 인간에게 크게 이익을 더하여 넉넉하게 한다는 것은 경제성장을 의미하며, 널리 넘쳐나게 한다는 것은 성장의 과실인 부(富)가 흘러넘쳐 고르게 배분되는 것을 의미하고, 살아있는 동안 잘 다스려 인도하라는 것은 보편적인 자유, 정의, 평화의 방향으로 다스리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국민 모두 각자가 스스로 선택한 목적을 자유롭게 추구해 얻은 부산물이 사회 전체의 공동선으로 되돌아오면 가난한 절대 다수를 번영시킬 수 있으므로 홍익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만 경계해야 할 것은 개인적 부의 본능적 추구가 사회의 생산력을 확대시킨다고 해도 무분별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어떠한 사회도 대다수가 가난하고 비참한 생활을 한다면 결코 행복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민 전체에게 식·의·주를 제공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그들이 부유하게 살만큼의 몫을 허용하고, 나머지를 자신들의 노동생산물에 대해 분배해서 갖도록 하는 것이 공평할 것이다. 비록 한 사회가 노력 끝에 부를 축적하였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하지 못하고 정체되거나 쇠퇴하게 되면 대다수의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면에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발전하게 되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행복할 수 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것은 국가의 법과 원칙의 지배가 전제되어야 시장질서에 의한 국부증대와 공평한 소

득분배라는 공동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법과 원칙이라는 것은 사유재산권과 자유노동권(직업선택의 자유)에 입각한 자유시장경제체제이다. 풍요로운 삶의 전제조건인 경제발전은 노동생산성과 노동효율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교우위와 규모의 경제에 입각한 전문화와 분업 및 시장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유노동, 자유기업 및 자유무역이 인간의 경제적 번영의 지름길이 되며, 이로 인하여 정신적 생활도 윤택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손을 거쳐 만들어진 모든 물건과 모든 사람들이 홍익인간정신에 입각하여 자기 일을 충실하게 하면서 사익추구 행위를 했다면 비록 공익증진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의 증진에 기여하게 되므로 결국 올바른 정신에 의한 개인의 욕망 추구가 경제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개인의 이기심에 기초한 자유시장경제는 인류를 번영으로 이끈 정치제도를 만들어 냈지만,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칼 맑스의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를 만들고 말았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정모, 『홍익국부론』, 울곡출판사, 2016.
이민화, 『대한민국의 4차 산업혁명』, KCERN, 2017.

이 자료가 도움 되셨다면 수신번호 '#7079-4545'로 ✉ 문자후원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